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77년 이대 강당에 울린 심장소리



이 정 임_ 이화여대 사학과 74학번. 프리랜서 영어 강사(현)

사람들은 보통 30년쯤 지나면 과거의 잊혀졌던 일을 되새기고 고백도 한다고 누군가에게서 얼핏 들었다. 그런데 막상 기억을 더듬어 긴급조치9호 시대에 대학을 다니며 최류탄과 유인물 등이 일상화되었던 캠퍼스, 길거리 불심검문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일이 참 까마득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평소엔 편리한 인간의 망각 장치가 이럴 땐 꽤 불편하다.

1974년 이대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동창 홍미영의 권유로 '재일'이라는 학술(?) 서클에 가입하였다. 서클 활동은 내겐 어느 정도 부담이기도 했고 큰 보람이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관, 국가관,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 선배들을 만나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적 성숙을 경험하는 기쁨을 즐겼다.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고 토론하며 때로는 농촌활동, 달동네 야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평범한 여대생과는 다르다는 자부심을 무의식적으로 달고 다녔던 듯하다. 그래서 어느날인가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조순경 언

니가 웃으면서 슬며시 이런 말을 던졌던 기억이 난다. “너희들 뚫어진 단추구멍 사이로 교만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애.”

그러던 중 1977년 4학년이 되어 1학기 새얼 회장에 홍미영이 되어 뒤송송한 봄을 보냈다. 홍미영이 경찰서에 1주일인가 잡혀가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것도 묻지 못하게 하였던 기억이 나고, 이혜경, 고광순 언니의 구속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는 그때 검은 리본을 달았고 캠퍼스는 우울했고 불안했다. 2학기가 되어 내가 새얼의 회장을 맡게 되었고 교내 연극 공연이 학교 측의 저지로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인물을 돌리는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 한우섭이 준비해온 등사기로 내 자취방에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쓰고 빛과 소리가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며 유인물을 만들고 새벽에 마치 선물 포장하듯 포장하여 모래내 어디선가 후배들을 만나 하나씩 나눠주고 강당에서 채플 시간에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유인물을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시켰다. 유인물 포장지에는, 뜯어서 채플 시작과 동시에 나눠서 돌리라는 메모를 적어두었다. 나는 너무 두려워 내 자리에 앉지 못했다. 그때 시대 화장실에도 유인물을 놓아두었다. 채플이 시작되자 강당 전체에 하얀 유인물이 펠럭펠럭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내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렸는지 지금도 다른 기억이 나질 않고 그 순간의 떨림만이 남아 있는 듯하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유인물에 써있는 구호를 크게 외쳤다. 그리고 강당 앞 계단까지 나와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차마 앞으로 나서서 주동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때 나와 홍미영은 유인물을 기독교회관 KSCF에 전해주러 갔다. 그때가 1977년 10월쯤이었던 것 같다. 그후 한 번 더 유인물을 같은 방식으로 뿌렸으나 우리들 중 아무도 검거되지는 않았다. 사안이 경미해선지 완전범죄를 해선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유인물이 돌고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하던 와중에 우리과(문리대 사학과) 이춘란 교수께서 내게 슬며시 “너 수고했다” 라고 하시곤 가버리셔서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난 그 사건으로 심한 자책감과 부끄러움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그후 친구 선배들이 공장 체험을 위해 구로동 달동네에서 합숙을 할 때도 합류하지 않았다.

그렇게 졸업하여 전혀 다른 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광주사태가 터졌고 그때 수배 중이

틴 이명준 씨 부부를 숨겨주다 많은 수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한 인물이 오늘날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게 된 내 남편 문국주인 걸 보면 사주는 고쳐도 팔자는 못 고친다는 말이 맞는지, 피해가려 해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경로는 이렇듯 정해져 있었나 보다. 부끄러웠던 기억이지만 이제 긴급조치 시대를 정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잊었던 기억 조각들을 엉성하게나마 끼워 맞추어 보았다.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었다면 내 기억력 탓이려니 흐르는 세월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부르지 못한 노래-먹구름 덮인 '74년



전 재 주_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74학번. 한국외환은행 차장, ㈜삼원월드와이드대표,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컨설턴트, 오일코리아 이사(현)

1974년 입학 직후, 공릉동 교양과정부 뒷산 마른 잔디밭에 누워 바라본 3월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다. 나는 신입생의 들뜬 기분으로 혼자서 생각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대학을 4년이 아니라 한 8년쯤 다닐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하게 되고 말았다.

74년 4월, 하숙집에서 신문 전면을 뒤덮는 시커먼 활자를 보았다. 전국대학생들이 국가변란을 획책한 사건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한다는 내용이었고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다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인민혁명당 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터진 것이다. 나는 당시 TV에 나오는 험악한 자수권고를 보면서 며칠 전 참가한 적이 있는 농법회 MT를, 신고해야 하는 불온한 모임이 아닌가 은근히 걱정하였다. 나는 4학년이던 고교 선배 이현범의 권유로 농촌법학회에 가입해 있었던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꿈에 부풀었던 74학번의 대학생활은 검은 먹구름 뒤덮인 음울한 시기로 접철되었다.

음울한 사건이 휩쓸고 간 현실과 달리 개강하자 나에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술과 미팅과